

글로벌대학 평가 ‘칼바람’... 충북대·교통대 지정취소 위기

교육부, 27개 혁신모델 성과 공개 통합지연 모델 국고지원 정지 수준 경상국립대·포항공대 성과 인정 창원대·승강기대 유일한 S등급 우수대 추가 예산, 부진대 감액



충북대학교 전경. /뉴스시스

교육부의 글로벌대학 성과평가에서 통합충북대·국립한국교통대 모델이 지정취소 절차 대상에 올랐다. 경상국립대와 포항공대, 통·연합국립창원대·한국승강기대, 순천향대 등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30일 글로벌대학 27개 모델, 35개교를 대상으로 한 2026년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성과 우수 대학에는 최대 28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반면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지원금을 삭감한다고 밝혔다. 통합충북대·국립한국교통대는 핵심 혁신과제 이행이 지연·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D등급 2회 누적 요건에 해당했으며, 등급이 최종 확정되면 글로벌대학 지정취소 절차가 시작된다.

이번 평가는 2023년 선정된 10개 모델에 대한 동행평가와 2024~2025년 선정된

17개 모델에 대한 연차평가로 나눠 진행됐다.

2023년 선정 모델에 대한 동행평가에서는 경상국립대와 포항공대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 분야 특성화를 위한 조직·협력 체계를 구축한 점을, 포항공대는 교육·연구·국제화 전반의 혁신과 연구역량 강화 성과를 인정받

았다. 반면 통합충북대·국립한국교통대 모델은 대학 통합을 기반으로 혁신을 추진해 왔으나, 통합을 위한 학사·조직체계 개편과 캠퍼스 특성화 등 주요 과제 이행이 지연되거나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교육부는 이 모델이 지정취소 요건인 D등급 2회 누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평가등급이 최종 확정되면 지정취소 절차에 착수하고, 관련 국고지원금 집행은 정지된다.

2024년 선정 모델에 대한 연차평가에서는 통·연합국립창원대·한국승강기대가 평가 대상 중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았다. 국립목포대도 대학 통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대형 국제과제 수주와 연구거점 구축 성과를 인정받았다.

반면 연합동아대·동서대 모델은 연합을 통한 차별화된 혁신성과와 핵심 과제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양대, 경북대, 대구한의대, 통합원광대, 한동대 등은 일부 성과지표 달성도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2025년 선정 모델에 대한 연차평가에서는 순천향대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순천향대는 AI의료융합 분야를 중심으로 아산·천안·내포를 잇는 교육·실증·상용화 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AI의료융합교육원 설립과 학사구조 개편을 통해 의료와 공학을 결합한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경성대, 제주대, 통합조선대·조선간호대, 한서대 등은 사업 집행과 지원화 기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2026년 국고지원금을 확정한다. S·A등급을 받은 우수대학에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28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반면 C·D등급을 받은 대학은 지원금이 감액된다. 연차평가에서는 15% 이상, 동행평가에서는 20% 이상 지원금이 삭감되며 등급이 낮을수록 삭감 폭은 커진다.

처음으로 D등급을 받은 대학에는 성과 미흡 원인 분석과 보완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검토해 지속 지원 여부와 지원금 삭감 규모를 결정한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오는 10일까지 한국연구재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 “글로벌대학 사업은 선연적 혁신계획이 아니라 지역에서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자는 취지인 만큼, 앞으로도 실행이 늦거나 성과가 불분명한 대학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4주기 대학기관평가 첫해부터 ‘격차’

대학평가원, 2026년 결과 발표 6곳 조건부·2곳 불인증 판정 신청대 42.1% 완전 통과 못해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조정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신청한 대학 19곳 중 11곳이 인증 판정을 받았다. 6곳은 조건부인증, 2곳은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서 4주기 첫해 평가부터 대학별 교육여건과 질 관리 체계의 차이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별칭 한국대학평가원은 30일 ‘2026년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를 발표하고, 11개교에 인증, 6개교에 조건부인증, 2개교에 불인증 판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인증·조건부인

증 대학은 17개교이며, 조건부인증 대학은 1년간 개선 실적을 바탕으로 보완평가를 받게 된다. 올해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대학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꽃동네대, 경운대, 국립군산대, 극동대, 동국대, 동서대, 숭실대, 영남신학대, 울산대, 을지대, 인제대, 인천대, 전북대, 초당대, 호원대, 홍익대 등 17개교다. 다만 평가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인증과 조건부인증 대학이 구분돼 있지 않다. 불인증 2개교의 대학명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평가에서 조건부인증과 불인증을 받은 대학은 모두 8곳으로, 신청 대학의 42.1%가 완전 인증을 받지 못했다. 4주기 첫 평가부터 적지 않은 대학이 보완평가나 재신청 대상에 오르면서, 대학별 교육

여건과 질 관리 체계의 차이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평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첫해 평가다. 4주기 평가는 4개 평가영역과 24개 평가준거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인증을 받으려면 4개 평가영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평가에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함께 적용돼 대학별 특성과 여건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평가원은 이번 평가를 위해 7개 평가단, 35명의 평가위원을 위촉했다. 평가는 서면평가, 현지방문평가, 평가결과 적합성 검토, 검증평가, 대학 의견 수렴과 이의신청, 의견서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이현진 기자

인천경제청, 경자구역 평가 8년연속 최우수

FDI 목표치 138.2% 달성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통상부가 주관한 2025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8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전략산업 투자유치부터 인프라 확충, 정주여건 개선까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져온 결과다. 이를 통해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을 선도하는 대표 모델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또한 인천경제청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뚫고 2025년 FDI 목표치의 138.2%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씨타리우스코리아, 고려아연, 테르메코리아 등 15개 글로벌 선도 기업의 투자를 성공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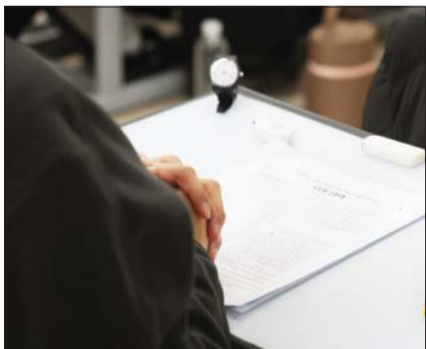
로 견인하며, 핵심 전략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명실상부한 글로벌 투자 중심지로 도약했다.

아울러 ‘IFEZ 비전·전략 2040’을 도입해 명확한 목표와 4대 전략, 세부 과제를 유기적으로 엮은 점도 주요했으며, 무엇보다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및 바이오경제 2.0 등 국가 주요 정책들과 방향성을 일치시킨 것이 호평을 받았으며, 성과평가위원회는 국가 정책방향에 전략에 체계적으로 반영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성과도 됐다. 청라하늘대교 개통으로 송도·영종·청라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여 물류의 효율성 극대화 및 생활권 통합을 실현하고 미단시티 개발 정상화와 국제학교 유치 추진을 통해 장기 표준 사업들의 활성화를 이끌어냈다. /인천=이승영 기자 sy1321@

2027학년도 수능 11월 19일 시행

교육과정평가원, 시행세부계획 공고 전 영역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한국사 미응시 땀 성적표 미제공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뤄지는 13일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1월 19일 시행된다.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고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전 영역과 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평가원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6월과 9월 모의평가 결과와 영역별 특성을 고려해 적정 변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한문으로 구분된다. 한

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며,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표도 제공되지 않는다.

국어와 수학은 기존과 같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치러진다. 국어는 공통과목과 함께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1개 과목을 선택한다. 수학은 수학 I·수학 II를 공통으로 응시하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개 과목을 선택한다.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로 나뉜다. 사회·과학탐구는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물리학 I, 생명과학 I 등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으며,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4 | 해질 / 19:57

7월 1일 (수) 음력 : 5월 17일

수도권 날씨 22~33°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20/33, 동두천 20/32, 가평 20/33, 파주 20/33, 서울 22/33, 양평 21/33, 수원 22/31, 용인 22/31, 평택 21/31, 백령도 18/2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영국 수십 년 만 최대 軍개편, ‘우크라 모델’ 본 받는다
▲“美가 막은 미토스급 AI 만들었다”... 中 업체들 “비용은 6분의 1” /사진 뉴스시스

▲레바논 대통령 “이스라엘 국경까지 군 배치”... 헤즈볼라 무장해제 변수
▲중국 군·해경, 스카버러 암초서 순찰 강화... “영유권 수호” 강조

▲中 공안부 “게임 ‘포켓몬 고’ 지도 정보, 국가 안보 위협될 수도”
▲中상무장관, 독일에 “중·EU 관계는 제로섬 아닌 윈윈”